머니투데이

# 보인고, 고교에서 미리 맛보는 대학영어

B&C 고문순 기자 | 입력 : 2014.09.02 15:32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가 고교-대학 연계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등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호응도 뜨겁다.

사진제공=보인고

보인고는 고급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 영문학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고급영어 강의를 실시한다. 주 3시간(총 5주) 실시되며 이후 참관 평가, 조별 발표 및 과제 평가 등을 거쳐 수료증이 발급된다.

고교-대학 연계 글로벌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과 보인고등학교가 연계한 영어 토론 프로그램으로 토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 영어토론대회를 실시하여 토너먼트를 통해 승리 팀을 가린다.

연간 70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토론의 장점과 영어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효과를 자랑한다.

보인고의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문화교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후원 하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자원활동가의 문화교류 수업이 이루어진다. 연 6회 수업(브라질, 캄보디아, 핀란드, 인도, 호주, 베트남)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기에 더없이 적합하다는 평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